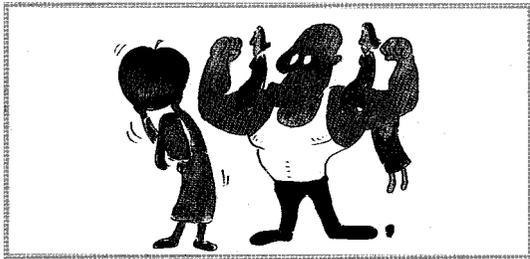


에이즈-남성이 막을 수 있다



權寬祐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무총장



HIV/AIDS 유행은 세계적으로 주로 성 접촉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 성접촉 시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 상대자가 더 많은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남자에 의해 여자가 STI/HIV 등에 감염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쉽다. 또한 여자들이 성관계 시의 결정권이 남자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까지의 관습이나 가능성이 남자스스로의 HIV감염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남자의 HIV감염과 AIDS사망이 여자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남자들,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실제로 HIV 감염인중 약 4분의 1이 25세 이하의 젊은이이다. 또한 HIV 감염된 마약사용자들이 주로 남자이고, 그들이 그 마약상대자와 성상대자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왜 남자들이 나서서 이 '에이즈'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지는 자

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남자들을 '문제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해결대상'으로 볼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UNAIDS Peter Piot 사무국장은 지적했다. 그래서 남들과 함께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2000년 World AIDS Campaign을 전개함으로써 HIV/AIDS유행을 억제하고 남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그들의 가족과 성상대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성문화의 개방, 성충동을 유발하는 매스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성에 대한 무지와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부재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한 성행태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성문화는 성에 관한 문제의 노출이 금기시 되고 있다. 반면에 남성의 성행위는 여성과는 달리 허용되는 문화를 유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성들에 대한 성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학교 및 직장과 가정의 성교육은 거의 없거나 피상적이며 지속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상담실의 최근 5년간 상담실적을 중심으로 남자들의 성행태를 살펴본다.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평균 내담

자 남녀비율은 남자가 80%, 여자가 20%로 나타났다. 더구나 여자상담의 경우는 남자에 의한 성폭행이나 성접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및 행동이 상담의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

상담내용 중 '99년도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의 87.1%가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감염우려로 상담을 했으며, 그 성관계 상대자는 82.9%가 이성, 10%가 동성, 5.6%가 외국인이었다(미확인 1.5%).

상담자들의 성관계 시 콘돔사용이 24.2%, 비사용 68.5%로(미확인 7.3%) 아주 낮은 콘돔사용률을 나타냈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이 상담을 해오는 남성들이 대부분 부부 관계 외의 매춘 등에 대해서도 당연시하며 크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우리 나라에서 남성들의 의도가 관용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성의식 왜곡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 남성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남편으로서의 남성은 아내를 참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반려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내를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육체적 성생활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성분화를 가꾸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로서의 남성은 자녀들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올바른 성교육의 주체자 역할을 해야한다. 성역할을 보는 것이 곧 교재가 되므로 건전한 성생활을 함으로써 자녀가 성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아들로서의 남성은 부모가 건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매개체의 역할

〈표 1〉 연도별 남녀 상담비율 단위: %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 9월 현재
남자	73.1	83.4	82.8	77.7	83
여자	26.9	16.6	17.2	22.3	17

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부모의 성생활이 바로 자녀의 성교재가 됨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남자친구로서의 남성은 여자친구를 성상대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는 좋은 친구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에 매우 많이 상담해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자친구역할의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향락산업의 고객으로서의 남성은 성근로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성접촉 시 질병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위험한 성관계 시 콘돔사용을 거부하는 만행이 고쳐져야 하며, 여성용 콘돔 사용의 적극적인 권장 등의 최소한의 STI/HIV 예방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섯째, 일반적인 남자로서의 남성은 성폭력을 중단하고 성추행 등의 비인격적 행동을 바로잡아야한다. 나아가 성(性)자체의 올바른 인식과 행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性)건강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상태가 있다는 포괄적 성의식을 갖고, 건강한 성행동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풍토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남자들이 술선하여 가정중심의 건전한 성문화를 양성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사회는 구성단위의 핵심인 가정공동체가 바로 서고 전체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에이즈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세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A